

Age 100 플랜

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

2025 SPRING
VOL.49

AGENDA
푸르름이 가득한
봄의 행운으로

TURNING POINT



전환점

이 순간은 변화의 예고편,
멈춤이 아닌 시작의 타이밍.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세요!

NH농협은행

RETIREMENT
중장년 취업트렌드 4, 디지털 분야
복합 피부 관리법 - 환경변화의 환경 변화에 따른 피부 관리 중요

FINANCIAL
트럼프시대 향한 코인... 알고 투자하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불확실성의 시대

HAPPY
인터뷰 - 가수 김장훈
요리 - 탐스럽고 상큼 달콤한 딸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순간,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보세요

당신의 꿈은
이미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세요.
이 전환점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CONTENTS

2025 SPRING VOL.49

All100 플랜

2025년 봄 통권 49호

발행일 2025년 3월 4일

발행처 NH농협은행

발행인 은행장 강태영

편집책임 박현주

편집위원 김동민, 우승민, 김훈식

제작 농민신문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신고일 2012년 10월 19일

등록번호 서울중 바 00139

AGENDA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06

All 100 NEWS

08

푸르름이 가득한 봄의 행운으로

10

세금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정의와 조건

12

금융

2025년 금리로 살펴보는 한국 주식시장 전망

14

부동산

은퇴 세대의 새로운 주거 대안, 지속 가능한 주택

16

은퇴전략

2025년 새로운 노인이 온다



18

시니어 취업
중장년 취업트렌드 4
디지털 분야

20

골프
인당 100만 원 이상 들고 가세요
세계에서 그린피 비싼 골프장 모아보기

22

건강
봄철 피부 관리법
환절기의 환경 변화에 따른 피부 관리 중요

24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1
트럼프시대 핫한 코인... 알고 투자하자

28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의 시대'

32

법률 정보
피상속인이 외국인, 상속인이 내국인인 경우
국내 재산의 상속



34

여가&조이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 육지와 바다를 모두 품은 통영 느린 길 걷기

38

인터뷰
나눔은 '영혼의 보험' 품격 있는 떠나라 되고파
- 가수 김장훈

42

요리
탐스럽고 상큼 달콤한 딸기

44

영화
사랑하며 경계한다
- 영화 <장손>이 담아낸 우리 시대 대가족



QR코드를 스캔하면 NH농협은행 사보 All100클럽을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취임 “핵심 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

지난 1월 강태영 제 8대 NH농협은행장이 취임했다. 강태영 신임 은행장은 1월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 품격을 담다”를 목표로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원리원칙 재정립,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미래금융 선도 등을 강조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금융은 오직 고객 성장의 수단으로만 의미

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임직원들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고객 응대에 격을 높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도 말했다.

이영우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문장, 25년 사업추진 전략회의 실시

지난 1월 8일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25년 사업추진 전략회의가 열렸다. 영업본부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영업본부 사업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 부서별 핵심 목표 발표를 시작으로 영업본부 협력을 추구하고 영업본부의 실질적 지원과 실행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의 교육과 질의 답변 시간도 있었다. 이에 이영우 부문장은 현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년 새로운 시작, WM사업부와 함께

『WM로드쇼 N.EX.T』

WM로드쇼는 한 해 사업방향과 마케팅 비결(tip)들을 공유하며 WM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행사다. 올해부터 N.EX.T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프라인으로 재출범했다. 본 행사는 2월 5일 경북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영업본부에서 진행하며 4월 4일 인천 본부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WM With』 개최

투자상품 핵심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회 포럼인 'WM With'가 2월 7일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25년 부동산트렌드와 투자전략, 펀드 추진 아이디어, 고객 맞춤형 방카상품, 유언장 없이 상속이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푸르름이 가득한 봄의 행운으로

영하를 오가는 추웠던 날들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그럼에도 따스한 공기가 불어오는 봄은 어김없이 온다.

입춘을 지나, 점점 푸르러지는 들판에
꽃들이 피어나고 저마다의 푸르름을 떨친다.



LUCK

이번 봄호에는 푸르른 미래를 위해 알면 좋을 내용을 담았다. 이리저리 나기 시작하는
꽃들의 푸르름으로, 행운이 가득할 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보자.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정의와 조건



글
김지영 세무전문위원

Amoo 저문센터

SUMMARY

▶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 봐야 할 것

1.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 이상



김○○ 씨는 2020년도 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고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정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 김씨는 1세대 1주택자이기에 해당 주택 처분 시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을 거라 생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은 2년의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김씨와 같이 2년 이상 실거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상생임대주택제도의 등장배경과 정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상생 관계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생임대주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생임대주택제도’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세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통해 면
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두 가지

첫 번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
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
다. 단,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
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이는 소위 '갭투
자'에 세제지원 하는 것을 막기 위
함이다.

두 번째,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
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
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

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
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
간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임
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
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
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상생임대주택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 만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
입했으나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명
하게 절세 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금융

2025년 금리로 살펴보는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글
김서희 금융전문위원

Am100 전문센터

SUMMARY

- ▶ 1. 2025년 경제·금융시장 최대 변수는 금리
- 2. 기준금리 인하 시작되었으나 상당부분 주식시장에 선반영
- 3. 불확실성 확대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나 매수 기회 가능성도 생각해야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다. 뱀은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일어나 새롭게 활동하는 동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역시 뱀의 기운을 받은 것일까? 2025년 1월 한국 주식시장이 다소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스피가 2,400P 아래로 추락했던 작년 연말과 비교해 비교적 순조로운 시작이다. 2025년, '청사(靑蛇)'의 기운은 계속될 수 있을까?

미국 경제·정치 상황으로 높아진 금리 인하 전망치

2024년 9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작된 금리 인하(Pivot)가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피로감을 달래주며 시장은 '공격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점진적' 금리 인하 쪽으로 전망을 바꾸었다. 트럼프 2기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에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대두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2월 FOMC에서 25bp 인하해 4.25% ~ 4.50%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는 이보다 높게 형성됐다. 기존 '24년 9월 FOMC에서 예상한 '25년 기준금리 전망치는 3.40%였으나 12월 FOMC에서는 3.90%로 올라갔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생각보다 견조하고 노동시장 또한 예상보다 느리게 냉각되고 있어 금리 인하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

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 시기는 6월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 시장에서는 2025년 금리 인하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횟수는 2회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진 현재 환율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원화를 더 약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달아 2024년 4분기에만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와 고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라는 정치적 불안상황과 항공기 참사까지 더해져 민간 소비의 하방 압력은 강해졌다.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로 단행된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을 표현하자면 현재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 것이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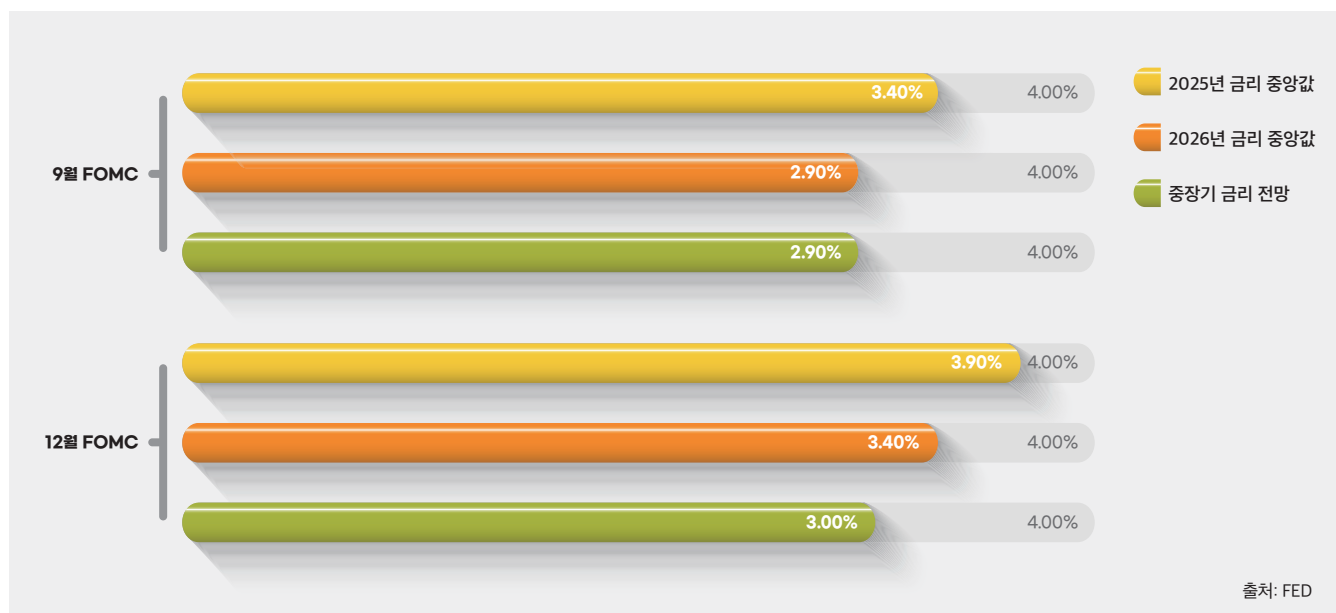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시장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상황보다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매수에 있어서 손실폭 하방이 어느 수준까지는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밸류에이션 면에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



이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시장에서는 변덕스런 일기예보처럼 여러 전망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춤추는 금리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현재 나오는 금리 인하 전망 역시 확률일 뿐이지 확신할 수 없다. 한 가지에 사로잡히면 ‘휴리스틱 (heuristic)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2025년 주식 투자는 시야를 넓게 열어두고 유연하게 자산배분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빅컷: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 *트럼프 트레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것. *밸류에이션: 특정 자산이나 기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표 FOMC 금리 점도표



은퇴 세대의 새로운 주거 대안, 지속 가능한 주택



글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

Am100 저문센터

SUMMARY

- ▶ 1. 지속 가능형 주택: 친환경, 고효율 완비한 주택
- 2. 은퇴 세대에게 주는 의미: 경제, 건강, 사회적 차원
- 3. 지속 가능형 주택의 전망: 빠른 속도의 보편화 예상

세계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생산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폐기물 증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 아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삶의 질도 높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이렇게 현재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한편,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1940~1960년대생)의 은퇴가 완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관심도 '성장성'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에는 은퇴 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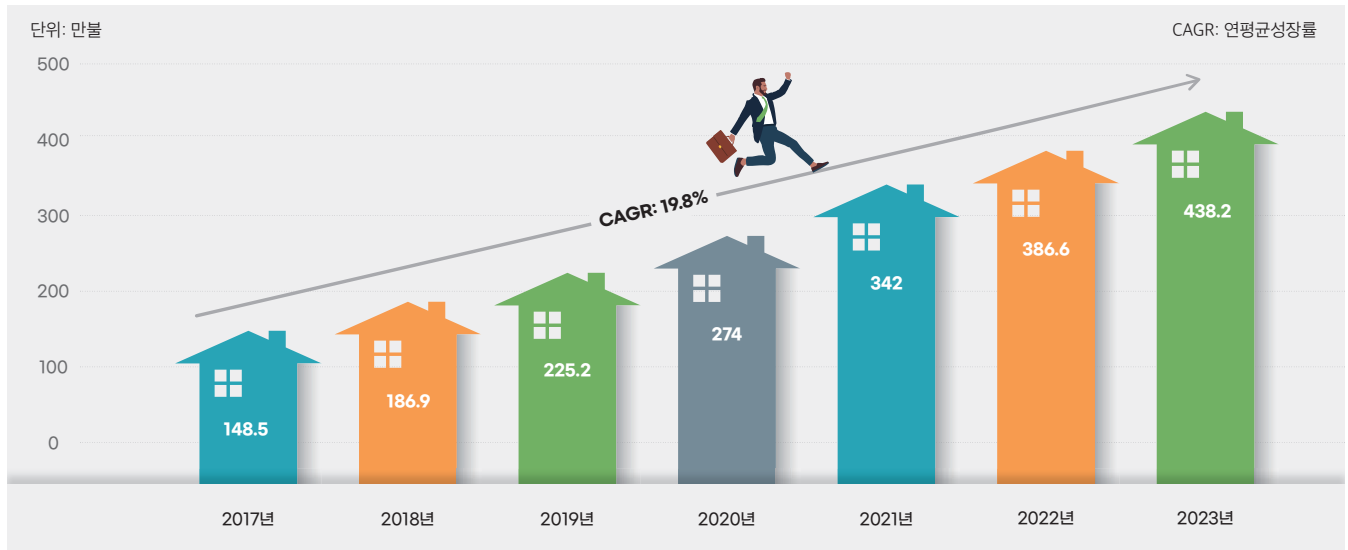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주택의 개념과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주택'이라는 개념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주택'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즉,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폐기물 관리, 실내 공기 질 개선 등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집을 '지속 가능한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주택의 한 형태인 '웰니스 주택'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48.5만 달러에서 2023년 438.2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2%

표 글로벌 웰니스 주택시장 규모와 성장률



출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2024)

에 불과한 일반 주택의 공급 증가율에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아파트를 건축할 때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주택이 좋은 이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인 가운데, 은퇴 세대가 지속 가능한 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지속 가능한 주택은 획기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기술이 도입되어 냉·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세계적인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기술이 도입된 주택은 높은 재판매 가치와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두 번째는 건강에 관련된 요인으로, 높은 녹지 비중과 웰빙(well-being) 중심의 거주 패턴이 수립되면서 지속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효율적 공조 및 단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관리가 중요한 은퇴 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은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주택은 환경 보호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입주주민들 간 높은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다.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고령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주택의 세대 공존형 설계나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은 은퇴 가구에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

1998년 부동산 시장에 처음 도입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제도는 어느덧 상업용 부동산 시장 마케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LEED for Home,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도 빠르게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주거 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젊은 노인'이 많은 시대, 지속 가능한 주택이 이들 은퇴 세대 인생 2막의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

2025년 새로운 노인이 온다

AirtoO 저문센터
SUMMARY



글 김훈식 은퇴설계전문위원

- ▶ 1. 기존의 노년세대와 다른 '신노년층'의 등장
- 2. 신노년층 등장으로 일어난 노인세대의 변화
- 3. 신노년층 등장에 실버테크 등 새로운 유망 산업 수요 증대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세계 최초 초단기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의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기존과 다른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인데 이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질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변화① _ 신노년층의 등장

첫째, 과거와 달리 고소득, 고교육,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신노년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헬스 앱과 스마트 워치를 통해 심박수, 혈압, 소모된 칼로리, 이동 거리, 수면 패턴 분석과 스트레스 레벨을 확인하고 본인의 생체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은퇴 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며 길어진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변화②

_ 노인세대의 분류

둘째, 신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세대도 두 부류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신노년층의 특징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의식이 강하다.

소득 구성을 보면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은퇴 후에도 재취업 및 투자로 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다. 소비 패턴도 생필품 위주의 단순 소비가 아니라 여행, 문화, 미술 등 본인을 위한 콘셉트 여행을 선

호하며 외모와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반면 은퇴 후 소득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우울증, 고독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여가와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개인별 맞춤 케어 서비스의 부족과 특정 질환만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지원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추구하는 이들에겐 하루빨리 개선 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신노년층의 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금

표1 기존 노인세대와 신노년층의 차이

구분	기존 노인세대	신노년층
출생세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및 이후 세대
소득 및 자산	낮은 소득 및 자산 수준	높은 소득과 자산 수준 (2022년 가구 평균 연소득 3,469만원, 금융 자산 평균 4,912만원, 부동산 자산 3억 1,817만원)
교육수준	초졸(34.9%), 무학(26.2%)	고졸(43.1%), 대졸(28.5%)
가치관	전통적 가치관, 상속 중심	자산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
사회활동	제한적 참여	소비, 여가, 사회 활동 적극적 참여
건강상태	만성질환 다수 보유	건강 상태 개선 (우울증, 낙상사고 감소)
노인연령 인식	평균 70세 이상	평균 71.6세 이상
사회적 배경	전후 복구 및 생계 중심	경제 성장과 교육 환경 개선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제도의 보완, 독거노인 급증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5년 노인 관련 유망 산업으로 헬스케어 및 바이오, 실버테크, 노인 여가 산업, 돌봄서비스 및 교육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표2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중장년 취업트렌드 4 디지털 분야

디지털과 AI의 시대는 중장년층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던 디지털 분야에 50,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디지털 업무 경력과 역량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일자리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재취업에 도전해 보자.

글 박해연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공공 일자리 디지털 안내원

공공 일자리 디지털 도우미는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이다.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사용법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로 활동하는데, IT 교육 이수 및 IT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등의 역량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스마트 매니저, 전문 강사, 보조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공공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각종 사이트(노인일자리여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 참여 의미의 일자리를 희망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시니어 배송원

시니어 배송원은 디지털 기기와 장비, 기업의 스마트폰 자체 앱을 활용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일자리이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연령대가 활동하기 유리하고, 건강하다면 70대 중반까지도 언제든 활동할 수 있다.

가벼운 서류부터 카드, 꽃다발 등까지 배송, 수거하며 업체에 따라 차량, 도보, 지하철,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을 선택하여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 업체의 별도 앱을 활용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온라인 교육) 수료 후 활동하며 해당 업체 앱 사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 즉시 활동할 수 있다.

비정기적 활동의 경우 개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활동이므로 교통안전과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다. 채용 정보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니어 유인보관소 물류 매니저

유인보관소 매니저는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는 유인보관소(티-러기지)의 짐 보관,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키오스크, POS, 컴퓨터 등의 사용 역량과 함께 외국어 소통 역량을 보유하고 짐 보관을 기본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활동해 볼만한 일자리이다. 유인보관소 물류 매니저는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물류 매니저 직무 교육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적이고 여행객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25년도 참여자 모집 일정을 꼼꼼히 챙겨서 지원해 보자.

시니어 프랜차이즈 크루

시니어 프랜차이즈 크루는 민간 외식업체 매장, 공공기관 여가시설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조리 업무 지원, 배식 지원, 주문 접수 및 결제 업무, 상품 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이다. 남녀 무관 조리 관련 자격증이나 조리 경력 이력이 있다면 활동하기에 유리한 일자리이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원 여가시설 내 카페, 음식점 등에서 시니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시니어들이 활발하게 근무 중이다.

전자기기 활용, POS, 키오스크 사용법 등의 '디지털 역량'과 위생 안전, 직접 서비스에 대한 '업무 순발력'과 '고객 응대 능력'이 필요한데, 시니어 프랜차이즈 크루의 경우 젊은 세대들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소통, 이해를 바탕으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눈 맞춤' 자세도 필수다. 채용 확정이 되면 보건증도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 업무 경력과 역량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종합복지관, 일자리센터, 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 재취업으로 안정적 소득 보전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이어가자. 📍

*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60세 이상인 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우리 동네 딜리버리 도보 배달원**
조○○ 님
 “초기에는 힘들었어요. 도보로만 활동하는데 13일 만에 100건, 하루 7~8개씩 배달해요. 나이가 들어서 주소, 동이나 호수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괜찮아요. 길 찾는 감각과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실제 근무자들의 이야기 ★★★★★
서울노인복지센터 디지털 안내원 김○○ 님
 “남에게 베푸는 기쁨에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저도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물어보고 했었는데 매번 알려달라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디지털 안내원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애착이 가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거물
'스티브 윈'이 구상한 골프클럽

\$1250
약 170만 원

미국 새도 크리크 Shadow Creek 골프 코스

사막 한가운데 수천 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새도 크리크. 수려한 조경을 위해 공사비만 6000만 달러(한화 약 816억 원)를 쏟아 부었다는 이곳은 카지노호텔 재벌 스티브 윈이 골프 코스 설계가 톰 파지오에게 의뢰해 1990년 개장했다. 2000년에 MGM 리조트가 인수하며 퍼블릭이 됐지만 보통 골프장은 아니다. MGM 리조트에 머무는 카지노 VIP들에게 티타임을 열어 희소성이 있고, 로커룸에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 등 명사들이 다녀간 흔적이 새겨져 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그린피는 지난해 25% 인상해 성수기에 최고 1250달러까지 받고 있다. 방송을 통해 유명 스타들이 이곳에서 대회를 치러 유명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문의 www.mgmreso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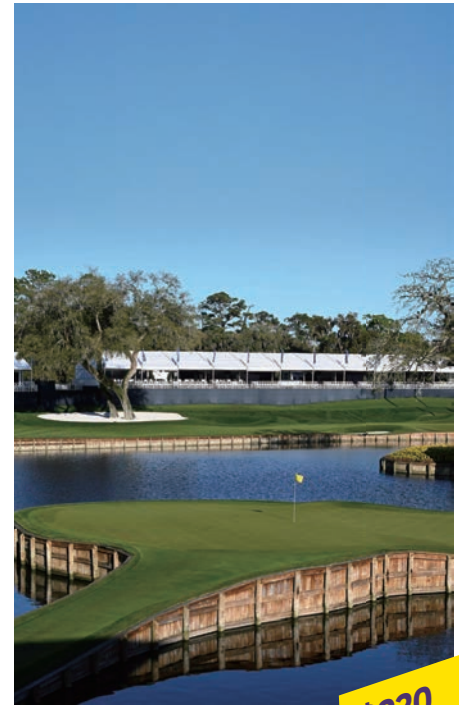


인당 100만 원 이상 들고 가세요 세계에서 그린피 비싼 골프장 모아보기



세계적으로
그린피가 인상되고 있다.
2024년에 무시무시한
그린피(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기록한 골프장을
모아봤다. 공식 홈페이지와
부킹 사이트 가격이 다르면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

글 노현주 출처 매경골프



\$920
약 125만 원

제5의 메이저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최지 미국 TPC 소그래스 Sawgrass 스타디움 코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폰테 베드라 비치에 위치한 TPC 소그래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코스 설계가 피트 다이가 설계했으며 1980년에 개장했다.

PGA투어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이곳의 시그니처는 스타디움 코스 17번 홀이다. 작은 원형 아일랜드 그린에 공을 올리기 위해 수만 명의 골퍼가 찾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TPC 소그래스의 특징은 그린 가까이 위치해 위협적이고 가파른 벙커, 호수를 따라 흐르는 페어웨이가 조성된 도전적인 홀들이다. 스타디움 코스의 경우 그린피는 720달러(한화 약 97만 원) 선에서 시작하며 보통 캐디 포함 920달러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문의 www.tpc.com/sawgrass

12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명문 코스

\$788
약 107만원

미국 파인허스트 Pinehurst No.2 코스

‘미국 골프의 요람’으로 알려진 파인허스트 리조트는 코스 수가 두 자릿수에 달한다. 클래식 골프 설계의 거장인 도널드 로스가 설계하고 1907년에 개장한 이후 US오픈 3회, 라이더컵 1회 등 많은 토너먼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곳은 ‘No.2(2번)’ 코스이며 키가 크고 잎이 기다란 소나무 숲 사이로 자연주의적 코스가 펼쳐진다. 벙커는 세인트앤드루스의 벙커 모래를 가져와 채웠는데 100년이 넘는 두 골프장의 역사적 가치를 교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번 코스의 진가를 알아보려면 리조트에 머물러야만 한다. 패키지 중 하나는 2박 숙박과 3번의 라운드를 제공하며 시작 가격은 747~788달러다. 그를 제외한 다른 코스들은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의 www.pinehurst.com



£595
약 106만원

2025년 6월
1000만 파운드로 인상,
세계 최고 그린피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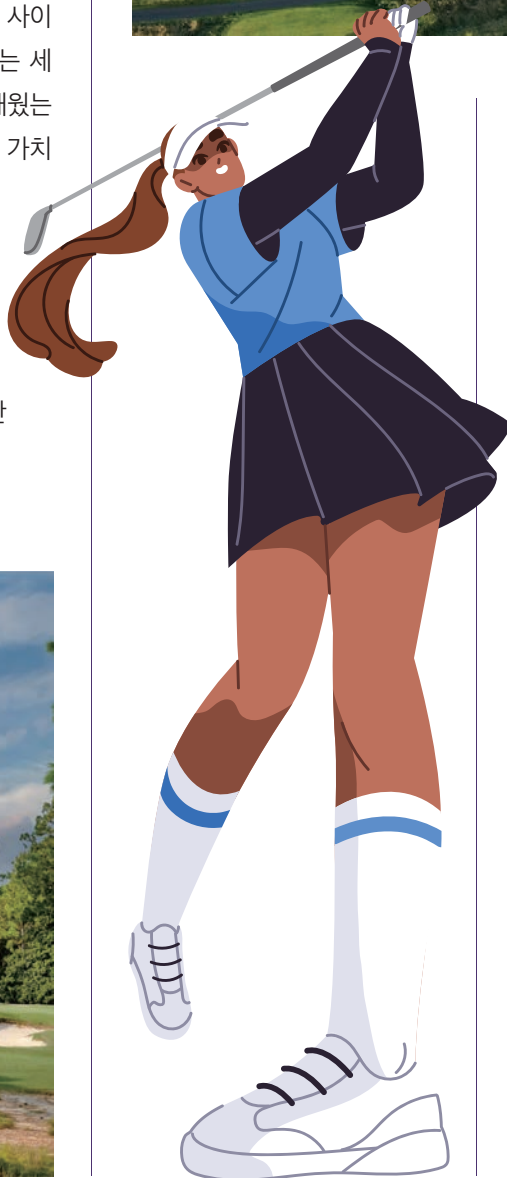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트럼프 턴베리 Trump Turnberry 아일사 코스

트럼프 턴베리는 스코틀랜드 에어셔에 위치한 리조트이며 골프 코스는 1906년에 개장했다. 등대가 인상적인 이곳은 2014년에 트럼프가 6000만 달러(한화 약 820억 원)에 인수했고, 코스와 리조트를 더 호화롭게 고쳐 투숙객에게 부킹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의하면 내년 6월부터 피크 시간대에 아일사 코스의 그린피가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고 한다. 회원과 투숙객의 티타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재도 그린피만 최고 595파운드로 영국에서 가장 높은 그린피를 자랑하는데 세계 최고 그린피를 예고한 셈이다.

아일사는 골프의 세계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디오픈을 4번 개최한 토너먼트 코스다.

문의 www.turnberry.co.uk



봄철 피부 관리법

환절기의 환경 변화에 따른 피부 관리 중요

글 강선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건강디자인학과 특임교수,
피부 관리실 애띠에 원장



계절이 바뀔 때는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특히 봄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장벽이 약해질 수 있다. 트러블과 노화를 막기 위해 환경과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피부 관리법을 알아보자.



봄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는 대기의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건조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각질은 수분을 잃어가고 딱딱해지면서, 탈각되지 않고 턴오버(피부에서 주기적으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현상) 주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이는 피부의 노화를 당겨 잔주름을 만들고, 쌓인 각질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올바른 방법의 각질제거와 보습을 통해 잔주름과 트러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 충분한 보습을 해줍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토너,

에센스, 세럼 등을 발라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이 빠져나가 지 못하게 보호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는 수시로 보습 제품을 덧발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주 1~2회 정도 수분팩을 사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각질제거를 통해 턴오버 주기의 정상화를 돕고, 잔주름과 트러블을 방지합니다. 저자극 각질제거제를 사용해 피부가 자극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봄철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피부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반복하면서 안면홍조나 모세혈관 확장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기온차는 피부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각질제거 전에 수분팩을 15분 정도 해주면 피부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질제거 후에도 피부의 진정을 돕기 위해 수분팩을 해야 합니다. 각질제거 후에는 평소보다 피부 관리 제품을 더 많이 발라 수분을 흡수시키고 보습감을 더합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한 번에 듬뿍 바르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서 흡수시키면, 같은 양을 바르더라도 더 많은 양을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각질제거 전후에는 평소보다 가볍게 클렌징해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언제 각질제거가 필요할까요?

피부가 붉고 가렵거나 피부염이 있다면 각질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각질제거 후에 피부가 더 민감해져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등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질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쌓여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집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져 각질이 탈각되지 못하면서 피부장벽이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질제거를 하면 피부 톤을 밝히고 피부장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건조한 피부에는 수분팩으로 피부장벽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팩을 떼고 나서 피부가 진정되고 편안해지면 각질제거를 해도 좋습니다. 단순 건조함으로 붉음증이 있었다면 수분팩 후에 피부는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건조함이 아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수분팩을 해도 진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붉음증이 심해집니다. 이때는 각질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각질제거는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게 각질제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질제거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지므로 바로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녁에 각질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봄에 자외선차단제를 왜 더 잘 발라야 하나요?

봄은 일사량이 늘어나 자외선이 증가하면서 피부가 강한 자극을 받는 계절입니다. 봄에 피부가

취약해지는 것은 햇볕이 약했던 겨울 동안 자외선 노출이 적다가, 갑자기 늘어난 자외선에 피부가 느끼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 UVA는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 주름을 만드는 광노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 멜라닌세포를 자극해 기미, 색소, 잡티와 같은 색소 침착을 불러옵니다. UVA는 유리창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때에는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이 길고 자외선이 강할수록 자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3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고, 자외선지수가 높을 때는 2시간 이내에 한 번씩 덧바릅니다. 야외 활동 등 갑자기 강한 자외선을 받을 때는 30분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바릅니다. 필요에 따라 양산,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해야 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로 피부가 가렵고 붉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손상을 입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산화를 일으켜 세포나 DNA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멜라닌색소가 증가해 기미의 원인이 되거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을 파괴해 주름이나 피부 처짐 같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장벽이 약해지는데, 자극에 예민해지고 피부 염증 증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부가 가렵고 붉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외부 자극에 대항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출 후 저자극 세안제로 세안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면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씻어 자극을 완화해야 합니다.☺

트럼프시대 핫한 코인... 알고 투자하자

2009년 1월 3일 등장한 비트코인은 올해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 4월 100달러를 넘긴 뒤 2017년 말 1만 달러, 작년 말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커졌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선거운동 중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가격 급변동이 심한 데다 기존 주식, 금, 채권 등 투자와는 차이가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 투자전략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키워드:

블록체인, 암호화, 공공 장부, 채굴

기술적으로 가상화폐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분산원장’, ‘암호화’, ‘채굴’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100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명의 참여자(노드)는 각자 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의 장부가 나머지 98명이 보유한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거래 내용이 과반수 일치하면 거래가 승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거래가 승인되면 그 내용은 하나의 블록에 담기는데 블록에는 거래 내용과 거래 당사자가 기록되지만, 암호화되어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이 블록은 10분마다 생성되고, 생성된 블록은 이전의 블록들과 이어져 큰 체인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체인처럼 연결된 블록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거래 정보를 암호화한 장부(분산원장)를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거래를 함께 감시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해킹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구조지요.

거래 기록을 블록에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노드는 그 대가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보상받습니다. 이 작업을 ‘채굴’이라고 하며,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채굴을 통해 직접 거래를 검증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해 중앙은행 같은 제3자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 구조죠.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서 비롯된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 같은 개념 탄생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입니다. 2008년 「비트코인: 일대일 전자화폐 시스템」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 개념을 발표하고 2011년 이후 사라졌는데, 사토시가 누구인지, 심지어 개인인지 혹은 단체였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

채굴 보상 반토막

비트코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반감기라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감기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컴퓨터를 사용해 16진수로 된 64자리 숫자를 풀어야 합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초기 채굴 보상은 50BTC였습니다. 2012년 11월 1차 반감기와 2016년 7월 2차 반감기, 2020년 5월 3차 반감기를 거쳐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25BTC에서 12.5BTC, 6.25BTC로 줄어

글 홍혜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2017년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정치부 정담팀에서 국회를 출입하며 각종 경제법안 임팩트 과정과
정치 현안을 취재하고 있음.



***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 반대로 가격이 낮은 경우는 역프리미엄이라고 함.

들었죠. 2024년 4월 4차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이 3.125BTC로 줄었고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은 보통 기존 최고점을 갱신하며 오르는 경향을 보였지만, 급등 후 1년 이상 80% 이상 하락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개수는 약 1,900만 개 이상으로 90% 이상이 이미 채굴되었고 2140년까지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단점 보완한 알트코인...

1만 개 이상 등장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며 이를 변형해 새로 생성된 가상화폐 ‘알트코인(Altcoin)’들이 등장했습니다. ‘알트코인’은 ‘대안’을 의미하는

‘alternative’와 ‘coin’을 합친 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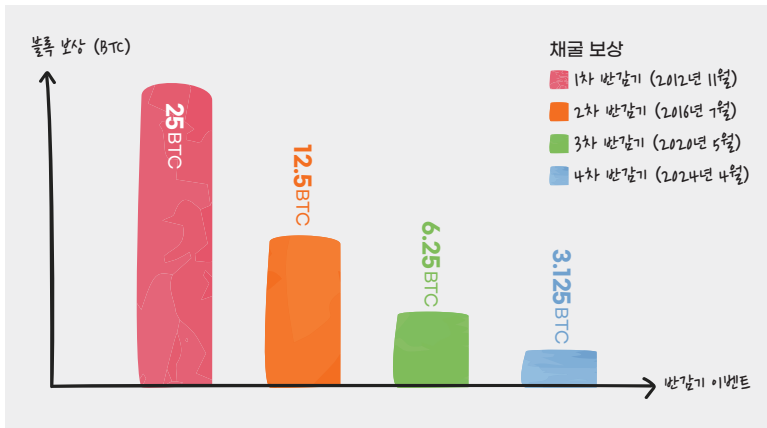
비트코인의 단점 중 하나는 거래 속도가 느리고, 블록 생성 시간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채굴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가 알트코인으로, 이에는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알트코인에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태동 초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100%였지만,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도미넌스는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



표 반감기에 따른 채굴 보상



승률을 기록하거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 도미넌스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거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이 낮을 경우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바탕으로 알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상승한 이후 하락할 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높을 땐 구매 주의

김치 프리미엄은 거래소별로 수요와 공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에서 가격이 일정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별 법인이 운영해 거래량이 각각 다릅니다. 이로 인해 매매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 거래소의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평균 김치 프리미엄은 4.73%였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2018년 1월 54.4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 * **밈(meme)**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밈(meme)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가상화폐
- * **시가총액**
특정 가상화폐의 시장 가치. 가상화폐 가격과 유통량을 곱해 계산함.

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로, 열풍이 식은 후에 큰 하락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김프가(kimpga.com) 같은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쟁글...

가상화폐 공시 사이트 활용

코인을 사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 거래소는 업비트인데, 세계적으로는 5위입니다. 세계 1위는 바이낸스, 2위는 바이비트, 3위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 투자에 앞서 객관적인 수치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 관련 사이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한국거래소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가상화폐의 시세·거래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코인을 섹터별로 분류해 놓은 기능(Categories)도 유용합니다. 인공지능(AI), 비트코인 계열, 이더리움 계열, 솔라나 계열 등을 섹터별로 구분해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밈(meme)’ 섹터를 살펴보면 도지코인(DOGE), 시바이누(SHIB), 페페(PEPE), 봉크(Bonk) 등 코인 정보가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쟁글(xangle.io)’은 국내 기업인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코인 정보 사이트입니다. 코인 사업자 소식을 모은 코인 전문 공시 플랫폼으로, 주식에서 금감원 전자공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의 시대'



사진 출처: 나무위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키워드가 '불확실성'인 만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 수두룩한데요. 트럼프가 다시 이끄는 미국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 삼아 왔습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이 ‘America First’인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인데요.

특히 중국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에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 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메시지는 그간 예고해 온 강경 관세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나라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게 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약 0.04%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 관세(20%)와 대중국 관세(60%)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

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한국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충격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중심의 제조업 재편이 가속화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보에 우리나라 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특히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거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기도 하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김범석 쿠광 의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밑 외교도 활발한데요. 현대차그룹은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7천만 원을 취임식에 기부하는 등 작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 대응과 원활한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 가상자산, 떼어낼 수 없는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첫 임기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매우 변동성이 크며 허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가까지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는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 내 비트코인 보유 규모가 커졌고,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못지않게 가능해지면서 이 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자산을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과 은행 서비스 접근,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 10만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취임식 이후에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10만 1천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맞춰 가상자산 TF까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TF는 향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연방 부처와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도 가상자산

*** 밈 코인**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

*** 보편 관세**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발전에 한몫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밈 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승리’를 축하할 때”라며 “내 새로운 공식 트럼프 밈(Official Trump Meme)이 여기 있다”고 밈 코인 출시를 알린 바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식 멜라니아 밈(Official Melania Meme)이 출시됐다. 여러분은 ‘\$MELANIA’를 지금 살 수 있다”며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우리 산업별 대응책은?

트럼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산업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법 ‘칩스법’ 때문인데요. 트럼프 정부는 칩스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 많은 회사들이 돈을 빌려 여기(미국)에 반도체 회사를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회사를 주진 않을 것”이라면

표 비트코인 가격 추이





*** 칩스법**

일명 반도체법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 만든 법

*** 전기차 의무화**

조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 10% 이하인 전기차 비중을 오는 2032년까지 5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정책

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칩스법,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해 527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반도체기금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90억 달러(약 57조원)를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5% 세액공제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요.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반도체 기업들도 세계 혜택 축소 내지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안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업계인데요. 친환경차 정책 변화의 초점이 규제에서 혜택 폐지로 바뀌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GM, 포드의 입장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건데요.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포드와 GM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지만, 이는 신생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피상속인이 외국인, 상속인이 내국인인 경우 국내 재산의 상속

피상속인(망인)은 미국 시민권자다. 피상속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와 자녀가 있다.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 전 중요한 조건은 피상속인의 '국적'

이럴 때는 금융기관 조회 또는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가족관계를 증명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상속인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쉽게 상속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상속인은 가족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피상속이 외국인일 때 상속의 어려움

첫째로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등록한 외국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 사항의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내국인의 사망과 같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직접 금융기관마다 연락해 재산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의 경우 외국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해야 하며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선택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

이때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발급 받았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한 인물임을 증명해 상속을 개시할 수 있지만, 만약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외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다른 방법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상속을 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미국 법원을 통해 상속 집행 대리인을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상속 집행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대리인 증명서만으로 곧바로 상속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면 등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회사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상속을 개시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 받음.

글 김철웅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Happy

행복이야기

여가&조이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 육지와 바다를 모두 품은
통영 느린길 걷기

인터뷰

나눔은 '영혼의 보험'
품격 있는 만따라 되고파
- 가수 김장훈

요리

탐스럽고 상큼 달콤한 딸기

영화

사랑하며 경계한다
- 영화 <장손>이 담아낸
우리 시대 대가족



01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육지와 바다를 모두 품은 통영 느린 길 걷기

글 엄용선 여행작가 사진 작가 촬영 및 사월의 모비딕 제공

01 통영의 심장이라 칭하는 강구안에서 바라본 동피랑 마을풍경

02 강구안의 새벽을 여는 서호시장



02



미식의 걸음, 통영의 산해진미를 맛보다

‘바람 맛도 짹짹한 물맛도 짹짹한, 전북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시인 백석이 묘사한 통영에 왔다. 산해진미 가득한 이곳에선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미식을 탐하는 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향한다. 강구안을 끼고 지척에 자리한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에는 지역 특산품인 굴, 멧게, 멸치를 비롯해 도다리, 바다장어, 불락 등등 근처의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즐비하다. 이는 통영의 별미이며 시래깃국과 충무김밥은 통영 뱃사람의 삶이 서린 음식으로 유서 깊다. 무척 말린 시래기에 장어 머리를 고아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서호시장의 ‘훈이시락국’은 오랜 시간 새벽 조업을 마친 뱃사람의 허기를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먼 뱃길에 보관이 쉽도록 밥과 반찬을 따로 한 충무김밥은 갑오징어 무침에 알싸한 석박지(깍두기)가 각 식당의 비법을 담고 있는데, 강구안의 ‘한일김밥’과 ‘똥보할매김밥’, 그리고 현지인 맛집으로 알려진 ‘풍화김밥’이 유명하다.

취한 걸음, 통영의 막걸리를 탐하다

통영에 왔으니 그 지역 술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통영 강구안을 바라보며 자리한 ‘코우너’는 그 전신인 ‘그늘집’ 시절부터 동네 밥집이자 술집으로 존재했다. 통영 옥지도를 대표하는 3미(쌀, 고구마, 생강)를 담은 막걸리 3종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멍쌀을 사용해 단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막걸리는 발효과정의 산미가 감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의 곳곳에는 그곳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하나 스며있다. 시장의 번잡함을 지나 만나는 해 질 녘 강구안은 찬란하게 아름답고 통영 대교에서 바라본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하다. 함께 나누는 맛이 더한 멋으로 되어 돌아오는 곳, 통영을 살다 간 옛 문화예술인의 숨결 역시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파도처럼 춤을 춘다.

03 '사월의 모비딕'의 통영 저녁노을 투어(사진 출처 _ 사월의 모비딕)





04 그 시절 뱃사람들의 도시락 05 통영 육지도 3미를 담은 '코우너'의 막걸리 차림 06 통영 서쪽 끄트머리 함박마을에 자리한 카페 '배양장' 07 문화예술이 파도처럼 춤추는 통영 08 통영 봉수골의 작은 동네 책방, '봄날의 책방' 09 미래사의 편백 숲길

칠맛을 더한다. 여기에 통영 식재료를 한껏 활용한 야끼소바와 함께하면 그 맛이 배가 된다. 막걸리와 하이볼의 완벽한 조화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 막걸리 한두 잔에 어제의 타인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

통영 산양읍, 미륵산자락의 물 좋고 산 좋은 야숫골에 자리한 '거북이와 두루미 양조장&야소주반'에서 남편은 술을 빚고 아내는 요리한다. 7년의 연구, 130여 차례 도전 끝에 완성한 레시피로 탄생한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는 그 어떤 첨가제 없이 오직 쌀과 물, 누룩만을 사용한다. 발효 과정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천연 탄산'이 특징으로 마치 스파클링 와인 같은 풍미가 통영 해산물과의 완벽한 조화를 기대하게 한다. 그 완벽한 궁

합은 아내 김은하 대표가 운영하는 '야소주반'의 몫. 식재료의 당일 공수를 원칙으로 하는 고집스러운 철학은 입소문을 타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예향의 도시, 통영의 문화예술을 산책하다

통영의 바다는 시를 품는다. 한 폭의 수채화를 머금고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섬과 바다, 육지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예향의 도시, 그 자산을 거름 삼아 청마 유치환, 김춘수, 박경리, 윤이상, 전혁림 등등 통영 출신의 문화예술인이 다수 배출되었다. 그들의 삶과 예술은 청마문학관, 윤이상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등지에서 엿볼 수 있다.

단층의 집들이 소박한 멋을 풍기는 봉수골 골목 끝에는 통영을 대표하는 화가, 전혁림을 기념하는 미술관이 자리한다. 통영 바다를 소재로 한 푸르고 시원한 풍경,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작품에서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로 알려진 화가의 예술혼을 만난다. 일평생 그림 외길을 걸어온 노 화백의 생애, 미완의 작품으로 남은 '통영앞바다'를 마주하니 그 깊이와 무게가 남다르다.

통영 문학의 현주소는 봉수골 동네 책방 '봄날의 책방'에서 만날 수 있다.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출판사 '남해의 봄날'





에서 운영하는 공간 내부에 들어서자 온화한 책의 기운이 밀려온다. '작가의 방'을 시작으로 '책 읽는 부엌', '바다책방', '그림책방'이 이어지고 인문, 예술, 그림책 등등 각 공간에 걸맞은 도서 큐레이션이 지나는 발길을 붙잡는다. 자타공인 통영의 명소, 봄날의 책방에서 인생 책 한 권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보자.

사적인 통영, 깊이 있는 영감에 빠져들다

햇살을 머금은 바다, 열린 창문으로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면 낚시꾼들의 유희는 그 끝을 모르고 이어진다. 늦가을 미래사는 단풍의 끄트머리에서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내비치고, 편백 숲길을 걷는 걸음은 깊은 들숨과 날숨이 그 템포를 함께한다. 통영 제일로 꼽는 달아공원의 노을 또한 그 황홀경을 쉬이 잊기 힘들다. 많은 것을 보기보다 느리게 속내를 담아내는 시간, 지극히 사적인 통영이 궁금하다면 '사월의 모비딕'을 노크해 보자. 걷는 걸 좋아하는 두벅이라면 더욱 환영할 만하다.

카페 배양장은 통영의 잔잔한 바다, 한적한 어촌을 품고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고도의 영감을 전한다. 수년간 명계를 배양하던 창고형의 건물은 그 일부를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지역과 문화를 아우르는 독특한 현지 분위기를 풍긴다. 탁 트인 실내 공간은 짙은 먹색을 품고 압도적 공간감을 선사한다. 항구를 향해 활짝 열린 통창으로 마을 전체와 그 너머의 바다가 가득하다. 통영 바다의 너른 매력을 만끽하는 '물멍'의 시간, 잔잔한 물결이 부서지는 햇살을 흠뻑리며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TRAVEL TIP_ 육지와 바다를 모두 즐기는 통영 구석구석 여행



KIM JANG HOON

누구보다 2025년을 희망차게 시작한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김장훈(61)이다. '나와 같다면', '난 남자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그에게는 '공연의 신', '기부 천사', '독도 지킴이'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일련의 사건들로 부침을 겪은 그는 몇 년 전부터 젊은 층에게 '숯툰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글 이은주 서울신문 기자
사진 FX솔루션 제공

가수 김장훈에
대하여

나눔은 ‘영혼의 보험’ 품격 있는 탄따라 되고파

‘숯툰’은 김장훈의 한자 ‘畵’과 ‘長’을 모양이 비슷한 한글 ‘숯’과 ‘툰’으로 바꿔 적은 것으로 김장훈 특유의 지르는 창법을 조롱하는 인터넷 영상에서 비롯됐다. 안티 팬도 포용한 덕분에 김장훈은 젊은 팬들과 교감하는 계기가 됐다.

‘숯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제2의 전성기

‘숯툰’이라는 별명이 처음에 기분 나쁘지는 않으셨나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일종의 게임처럼 저를 매개체로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악성 댓글에 강력 대응하는데 저는 재미있게 댓글도 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친근감을 표하더군요. 덕분에 지금은 10~20대가 공연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관객의 25%가 청소년인데 요즘 트렌드는 중학생들이 이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사가 계속 들어와요. 이후에 제가 직접 장비를 마련하고 후원을 받아서 ‘김장훈의 체험학술티’라는 행사를 10곳 이상의 학교에서 열었어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악성 댓글이나 대중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는 없나요?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해요. 악성 댓글에 매몰돼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좋은 댓글에 더 집중하고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어쩌다 악성 댓글을 보면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해요.

인생에 대한 지혜 생기는 60세 되니 편해져

요즘 얼굴이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요즘 마흔은 불혹이 아니라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쉼이 되면 세상에 대

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다가 예순이 되면 인생에 대한 지식과 지혜, 지성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이라는 나이가 참 좋아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건디셨나요.

저는 공황장애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게 복귀했는데 코로나19가 닦쳤어요. 중요한 4~5년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이후 소극장 100회 공연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티켓이 30장도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죠. 실망할 법도 한데 저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무명 때 소극장에서 수없이 빈 객석을 놓고 노래하던 시기가 떠올랐거든요. 지금도 노래의 힘만으로 공연을 꾸미고 입소문으로 관객들이 찾아오던 데뷔 초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멋있었던 때라고 생각해요.

나눔 하면 행복해... 무대에서 은퇴하고 싶지 않아

‘기부 천사’로서 꾸준히 나눔 하는 이유는.

진 나눔 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커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고요. 무대에서는 철이 안 들어도 내려와서는 철이 들어야죠. 나이에 맞는 품격을 지닌 탄따라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분노가 나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감사와 사랑이 저의 힘이에요.

복귀하면서 가족들에게 다짐하셨다고?



이전에는 제가 사회운동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연과 나눔, 사업 등 세 가지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노래는 물질과 상관없이 하고 싶어서 티켓 가격도 계속 내렸고 청소년에게는 앞으로도 2만 원만 받을 거예요. 공연은 제 유일한 취미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공연에 대한 설렘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무대에서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월세를 살면서 200억 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필요를 못 느껴서 집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나눔은 희생이 아니라 '영혼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봉사활동을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선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을 믿어요. 실제로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느껴요. 병원에 가도, 식당에 가도, 숙박업소에 가도 '건강하셔서야 좋은 일 많이 하신다'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쌓아 둔 보험이 작용했다고 믿어요.

장애인 문제는 낮춥에서 시작

밥 굶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활동에 주력하시는지.

요즘은 장애인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CEO인 기업이 16만 개가 되고 매출이 70조 정도가 돼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가 명예 CEO를 맡아서

광고나 홍보 등도 하면서 인식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복지에 대해서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장애인 관련 법안에 대해 필요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장애인들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도 화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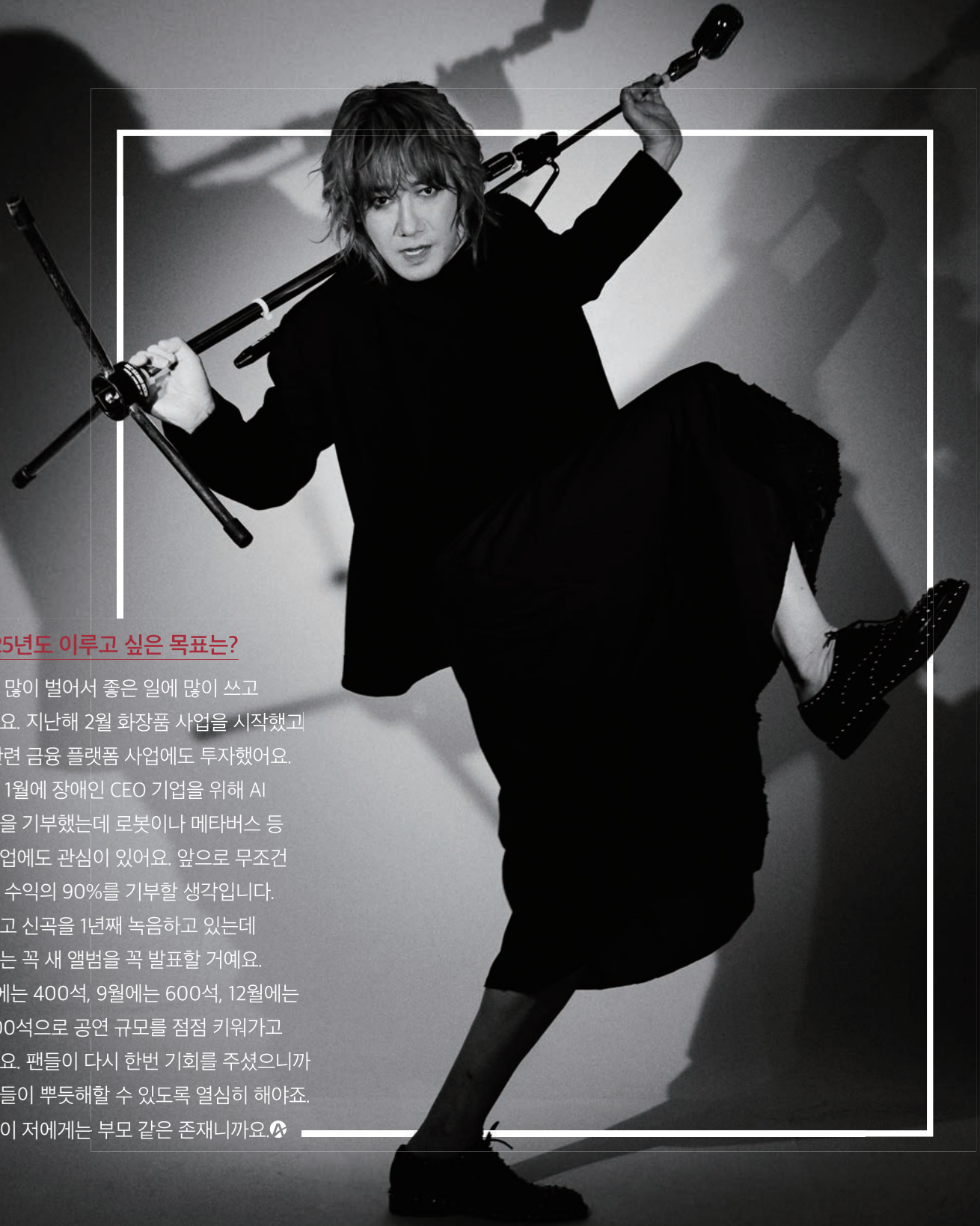
중증 장애인들이 침대 위에서 혹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공연을 보는 모습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낮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낮춥은 자주 보면 해결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인 '누워서 보는 콘서트'를 그동안 주로 시설에서 열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열고 싶어요. 지자체가 장애인들도 똑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저를 가수로 초대 안 해도 좋아요. 제 노하우를 총동원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눔하고 싶다면 구청으로... 팬들을 부모 같은 존재

올해 기부를 실천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가장 안전한 기부 방법은 일단 구청에 가시는 겁니다. 구청에서 소개해 주는 곳에 직접 자원봉사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한 번만 봉사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하다 보면 나눔에 대한 기분 좋은 중독이 생길 겁니다.



2025년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싶어요. 지난해 2월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AI 관련 금융 플랫폼 사업에도 투자했어요. 지난 1월에 장애인 CEO 기업을 위해 AI 로봇을 기부했는데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무조건 버는 수익의 90%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곡을 1년째 녹음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새 앨범을 꼭 발표할 거예요. 6월에는 400석, 9월에는 600석, 12월에는 4,000석으로 공연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싶어요. 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깐 그분들이 뿌듯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팬들이 저에게는 부모 같은 존재니까요.🎤

탐스럽고 상큼 달콤한 딸기



딸기는 상큼 달콤하고 향긋하다. 푸른 잎사귀 사이에서 자라는 연두색 딸기는 시간에 물들며 예쁜 빨간색으로 익는다. 한 알 베어 먹고 느껴지는 부드러운 과육과 촉촉한 과즙은 입안을 즐겁게 한다. 생김새와 맛, 효능까지 모두 훌륭한, 제철을 맞은 딸기를 만나봤다.

글 전원생활

딸기는 비타민과 영양분이 풍부하고,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 역시 뛰어나다. 딸기는 면역력 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리코펜(lycopene)’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식이섬유인 ‘펙틴(Pectin)’이 들어 있어 그렇다. 비타민 C가 레몬의 2배, 사과와 10배가 함유돼 있어 피부미용에도 좋다.

맛있는 딸기를 고르고 싶다면 이 조건들을 기억해두자. 먼저 예쁜 모양에 색이 곱고 윤기 있는 딸기를 찾아야 한다. 과육의 붉은빛이 꼭지 부분까지 퍼져 있는 것이 잘 익은 딸기다. 꼭지가 마르지 않고 파릇하면서 진한 초록빛을 띠는 것, 꽃받침이 뒤집혀 있는 것도 맛있는 딸기의 특징 중 하나다.🍓



STRAWBE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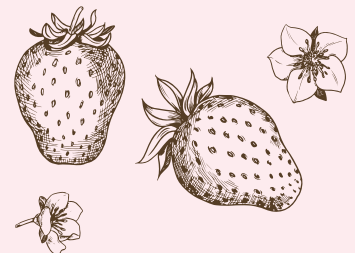
딸기 크레이프

준비하기(2인분)

딸기 3개, 크레이프 3장, 누텔라 6큰술, 슈거파우더 1작은술

만들기

- 1 흐르는 물에 딸기를 씻은 후,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없애준다.
- 2 딸기는 5등분으로 얇게 썬다.
- 3 크레이프 위에 누텔라를 골고루 바르고 ②를 올린다. 그 뒤에 크레이프를 3번 접는다.
- 4 ③의 완성된 크레이프에 슈거파우더를 뿌린다.





STRAWBERRY
딸기 파스타

준비하기(2인분)

딸기 4개, 파르펠레(리본 모양 파스타) 12개, 리코타 치즈 2큰술, 레몬 ½개, 올리브오일 3큰술, 소금 ½큰술, 후추 1작은술, 꿀 1작은술, 바질 5개

만들기

- 1 흐르는 물에 딸기를 씻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 2 딸기는 세로로 4등분한다. 레몬은 반으로 잘라 1조각은 장식용으로 썰고, 나머지는 즙을擠는다.
- 3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르펠레를 11분 정도 끓인 후, 찬물에 담가 식힌다.
- 4 볼에 ②와 ③, 리코타 치즈, 올리브오일, 후추, 꿀을 넣고 섞는다.
- 5 ④를 접시에 담은 후, 바질을 올려 마무리한다.



STRAWBERRY
딸기 히비스커스 젤리

준비하기(2인분)

딸기 10개, 젤라틴 3장, 설탕 80g, 히비스커스 티백 1개, 레몬즙 1큰술, 물 300, 식용 꽃 약간

만들기

- 1 흐르는 물에 딸기를 씻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없애준다.
- 2 딸기 6개는 세로로 4등분해 자르고, 4개는 반을 잘라 장식용으로 준비한다.
- 3 젤라틴은 미지근한 물에 10분간 불린다.
- 4 냄비에 물, 설탕, 레몬즙, 히비스커스 티백, 젤라틴을 넣고, 젤라틴이 녹을 때까지 끓인다.
- 5 접시에 딸기와 ④를 넣고 랍을 덮어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굳힌다.
- 6 ⑤의 완성된 젤리에 딸기 장식과 식용 꽃을 올린다.



HOUSE OF THE SEASONS

영화 <장손>이
담아낸
우리 시대 대가족

사랑 하며 경계 한다

가족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수십 년 살 맞대고 산 양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 속에 가끔 보이는 부모를 모르면 누구를 안단 말인가.

오정민 감독의 영화 <장손>은 가족들의, 알고 보면 더 징글징글한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 얼굴은 뜻밖에도 뭉클하다.

글 남은주 번역가 사진 쉼인디스토리



가부장제를 보살피는 사람들

〈장손〉에서 성진(강승호)은 제사를 지내러 경북의 본가에 내려간다. 제사를 앞두고 분주한 집안 풍경은 여성들에게 한국형 공포물이다. 한여름 며느리와 딸들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며 전을 부쳐도 눈썹 하나 까딱 않던 할머니(손숙)는 장손이 오자마자 얼른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힌다. 어른들은 장손에게 가업인 두부 공장을 이으라고 채근하는데, 이 집의 남성들이 가업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부러가며 집안을 진두지휘하고, 큰고모(차미경)가 공장 일을 다 챙기는 동안 할아버지(우상진)는 가끔 맛이나 볼 뿐 주로 글이나 읽고 아버지(오만석)는 술주정으로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사상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국 장남과 장손이다. 남성들은 체면치레를 하고,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이 가부장제가 어떻게 지금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영화가 흘러가며 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드러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가장의 체면을 유지해 주던 숨은 권력들이 드러나는데 큰고모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것이 아니었다. 큰고모는 약속받은 정당한 대가를 챙길 길이 막혀버리자 아예 돌아갈 길을 불살라 버리며 저항하고 성진의 누나(김시은)는 벌써부터 장손을 대신해 실속을 챙기려는 영리한 전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은 남성들만이 아니다.

멀리 있어야 보이는 것들

가족관계가 자꾸 불평등해지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데, 영화는 이를 공간으로 보여준다. 여성들은 거실이나 마당, 공장에서 일하고 남성들은 주로 안채 깊은 방에서 일한다. 제사상이 차려지는 곳도 여기다. 여성들은 제사를 지낼 동안 방 밖에서 손을 모으고 서서 기다려야 한다. 공간 분할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집의 권력구조 중심에 남성들이,

주변에 여성들이 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남성들의 허약함이 드러나면서 권력의 중심은 허물어지고 여성들이 점점 권력을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도 자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장손〉의 영리한 전략 덕분이다. 김으로 가득한 두부 공장의 흐릿한 화면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가족 누구 하나의 얼굴로 깊게 들



여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조심스레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을 취한다. 장손인 성진이 가족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실은 그가 일상적으로 가족과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장손>의 카메라만큼 가족과 떨어질 수 있다면, <장손>의 카메라처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할 수 있다면, 가족은 다시 그리운 어떤

것이 되리라고 상상해 본다. 성진과 할아버지가 산소를 찾던 날, 변을 잘 가리지 못하게 된 할아버지가 급하게 산소 옆에서 볼일을 보는데 카메라는 인물들의 짜증과 수치를 드러내는 대신 산자락에 감싸안듯 그들을 찍는다. 노년의 추태마저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느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잔인한 학살에서도 망쳐 목숨을 건졌던 소년은 이제 치매에 걸린 노인이 돼서 다시 이곳을 맴돈다.

가까이 들어가 들리는 것들

영화 <장손>은 시대와 시대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낡은 건 부모인지 몰라도 가족은 각자 서로 다른 시대의 자식들이다. 인민군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반공주의자 할아버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친 아버지, 영화를 하고 싶은 장손이 애초부터 서로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다. 사랑은 가족의 어떤 불행도 예방해 주지 못한다. 역사의 뜨거운 불길에 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자식들을 말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다. 역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불길을 준비하고, 가끔 가족 누군가는 스스로 불을 피우기도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멀리서 조심하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너를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자꾸 돌아보는 것뿐이다.🎥



NH 100

종합자산관리센터

금융 · 세무 · 부동산 · 은퇴설계 등 고객님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특화영업점입니다.

2025년 WM특화점포 (총 68개소)

경기	경기영업부	031-230-3800	제주	제주시지부	064-746-1117
	안양시지부	031-380-0800		노형금융센터	064-746-6111
	성남시지부	031-751-0161		제주금융센터	064-751-5747
	평택시지부	031-653-7100	서울 (강남)	대치동지점	02-567-0654
	의정부시지부	031-878-0100		서울영업부	02-483-2711
	안양호계금융센터	031-451-2680	강남중앙금융센터	02-538-8151	
	용인시지부	031-332-2181	서울 (중앙)	연신내지점	02-359-4601
	안산시지부	031-401-0640		마포금융센터	02-715-4491
	NH금융PLUS 분당센터	031-703-8600		종로금융센터	02-733-7001
	오산시지부	031-372-1101	서울 (강북)	성동금융센터	02-2293-4171
김포시지부	031-982-1921	목동역금융센터		02-2699-1701	
과천시지부	02-507-2131	서울 (강서)	서초동지점	02-584-0117	
강원	강원영업부		033-254-5071	공항동지점	02-2664-2711
	강릉시지부		033-641-3801	부산영업부	051-802-5206
	원주시지부	033-730-8000	온천동지점	051-553-5363	
충북	충북영업부	043-252-6579	부산대학교지점	051-512-0715	
	가경동지점	043-233-4211	마린시티금융센터	051-744-5601	
	충북대학교지점	043-265-5101	수성동지점	053-754-9531	
충남	천안시지부	041-561-3611	대구	대구중앙금융센터	053-256-2516
	서산시지부	041-669-3530		대구중동금융센터	053-761-3380
	아산시지부	041-544-2134	부평금융센터	032-510-8600	
전북	삼천동지점	063-221-4744	인천	송도시티지점	032-851-9130
	전북영업부	063-237-5090		연수금융센터	032-818-3674
	군산시지부	063-452-9600	광주	상무금융센터	062-384-2181
순천시지부	061-723-6300	봉선동지점		062-653-2185	
전남영업부	061-289-7801	풍암동지점		062-682-8152	
전남	여수금융센터	061-682-5151	대전	대사동지점	042-229-6560
	순천금융센터	061-752-3134		오정동지점	042-625-4282
	경북	상주시지부	054-537-2200	울산	울산영업부
포항시지부		054-247-2941	세종		NH금융PLUS 세종영업부
안동시지부		054-854-3311		직할	본점영업부
영주시지부		054-635-3021	서울대학교지점		02-889-8174
경남	창원시지부	055-263-6270			
	경남영업부	055-284-9526			
	진주시지부	055-830-3333			
	김해시지부	055-334-5111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은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은퇴목표를 설정,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받으세요!

새100플랜

NH농협은행



QR코드를 스캔하면 새100플랜 2025 봄호를
e-book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